

인문대 사람들

인문학연구원장 송용준 교수

인문대학에는 인문학연구원을 비롯하여 4개의 독립 연구기관이 있다. 이 가운데 인문학연구원이 가장 규모도 크고 명실 공히 인문대학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인문학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장 송용준 교수(중어중문학과)를 연구실에서 만났다.



• 송용준 교수

평소에 보는 송용준 교수는 단정하고 온화하면서도 내면의 침착함과 강직함이 느껴지는 선비이다. 그의 연구실은 평소 송교수의 인상과 다르지 않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서가, 가지런히 창가에 놓인 난초들, 깔끔한 테이블을 장식한 화병의 해바라기 등 모든 것이 송교수의 내면을 드러내 주는 듯했다.

인문학연구원은 1979년 인문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작년에 개원 30년을 맞았다. 1994년 인문학연구소로 개칭되었다가 2001년 인문학연구원으로 개편되면서 동아문화연구소 등 인문대 부설의 9개 연구소를 산하에 통합하였다. 그 뒤 7개 연구소가 신설되어 모두 16개 연구소를 거느린 종합적인 인문학 연구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난 해 12월에 취임한 송교수는 인문학연구원이 14번째로 맞은 원장(소장)이다.

“원장을 맡고 산하 연구소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연구원의 연구소들은 그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문대학 연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추진 중인 지원 확대가 연구소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을 벌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문학연구원은 각 연구소들이 내는 6종의 학술지 외에 연구원 차원에서 「인문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인문학고전총서’와 ‘인문학연구총서’를 간행해 왔다. 이러한 출판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인문학연구원의 또 하나 중요한 연구활동은 HK(인문한국)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문학 진흥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인문학연구원은 그 첫 해에 대형연구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의 10년 간의 지원 아래 ‘문명연구’라는 대주제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HK ‘문명연구’ 사업은 전임 김남두 원장님이 많은 애를 쓰시며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연구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에 24명의 HK연구 교수가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인 심사를 거쳐 6명의 HK교수를 9월 1일자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24명의 연구진이 담당하는 분야는 철학, 역사학, 고전학, 언어학, 미학 등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HK사업단의 연구활동은 이제 가시적 연구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24명의 연구진이 올해 안에 각각 한 권씩의 문명연구 텍스트 주해서와 연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인문학연구원은 그동안 인문대학의 열악한 공간 상황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올해 인문대학이 확보한 신축 대림국제관으로 내달에 이전하게 되면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개의 HK사업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인문학연구원의 사업단이 명실 공히 가장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는 사업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수한 인적 구성으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요즘은 인문학연구원의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송교수는 원래 당송(唐宋)시가, 그 중에서도 송시(宋詩)를 주로 연구해 왔다. 당시(唐詩)는 일반인들이 비교적 접할 기회가 있으나 송시는 좀 생소하다. “중국 시를 대표하는 당시가 표현이 깊은 데 비해 좀 좁다면, 송시는 제재로 일상적인 것들을 활용하는 등 표현범위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시에는 송시 나름의 맛이 있지요.”

좋아하는 시를 한 수 소개해 주십사 청하자, 송교수는 올해에 펴낸 도연명에 관한 책(「도연명 시선」)을 펼쳐들며 시 한 수를 가리킨다. 누구나 한두 연을 들어 보았을 지한 도연명의 <음주(飲酒)>라는 시의 제5수이다.

結廬在人境,	마을 안에 엮어놓은 오두막집이지만
而無車馬喧.	수레와 말의 시끄러운 소리가 없다.
問君何能爾,	그대에게 묻노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心遠地自偏.	“마음이 초연하니 사는 곳이 절로 외지다요.”
採菊東籬下,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다가
悠然見南山.	(허리를 펴니) 편안히 남산이 보인다.
山氣日夕佳,	산의 모습은 저녁 되어 아름다운데
飛鳥相與還,	새들도 함께 보금자리 찾아 돌아간다.
此中有真意,	여기에 진실의 암시가 담겨 있어서
欲辨已忘言.	따져서 말하려다 이미 말을 잊었다.

늦은 오후 메밀차의 향기와 더불어 그윽하게 마음을 울리는 시를 음미하며 송교수의 연구실을 나섰다. (정리 이주형)

송용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에 재직하다 1997년 모교에 부임하였다. 「소순흥시(蘇舜欽詩)역주」, 「진관사(秦觀史)연구」, 「송시사(宋詩史)」(공저) 등 많은 저서를 냈다.